

제2회 화성시 이중언어말하기대회 성료



"글로벌 시대, 화성시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되는 대회"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27일 토요일 오후 2시 협성대학교 이공관 204호에서 제2회 화성시 이중언어말하기대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8월 6일 40명이 모여 진행된 예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15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치루는 본선이다.

한국어와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등 2개 언어로 발표자의 순수한 마음과 꿈, 취미, 생활 등을 발표했다.

행사는 정명근 화성시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전년도 대상 수상자의 축하와 다문화어린이합창단의 축하 공연

과 마술공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참가자들을 위한 선물과 경품 추첨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대회는 발표자가 한국어와 부모의 모국어로 약 2분 정도 발표하는데 내용 구성, 표현 구사력, 태도 등으로 각각 100점이 만점이다. 2017년 이후 중도입국 학생의 경우 체류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대회의 공정성을 더했다.

심사위원은 협성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조득창 교수가 심사위원장으로 각 분야의 교수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수상은 입상 8명, 장려상 3명, 우수상 2명,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으로

진행되었다.

입상은 박미나, 김시현, 안정화, 김지윤, 김예린, 김유진, 정윤서, 불독엘리스예나 학생이 수상하였다. 장려상은 나빌, 박발레리아, 전진 학생, 우수상은 또안트, 전원 학생, 최우수상에 김빅토리아 학생, 대상은 장완디 학생이 수상했다.

조득창 심사위원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잘 표현해주었고 모든 참가자에게 대상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모두 잘 표현했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이중언어를 익힌다면 우수한 인재가 될 것이다. 꿈과 희망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참가

자 모두가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글로벌 시대에 화성시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발판이 된 대회로 모든 학생들의 역량을 성장시켜 세계 속에서 발휘하길 바란다"며 세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길 격려했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과 더불어 화성시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무분별홍보비 NO 실구매 할인 YES

최강 판촉물

최저가+추가 할인

www.choikang.kr

6만 여가지 판촉물 공공기업 납품이력